

# “5·18 진실 제대로 알려 역사왜곡 강력 대처”

### 당시 교민 성명서·시위 등 해외 기록물 공개 주한 독일 대사가 들려주는 역사 청산 강연도

#### 기념재단, 올 사업계획 발표

5·18기념재단은 올해 주요 사업의 방향을 ‘진실 규명을 통한 왜곡 대응’으로 정하고 “5·18 왜곡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또 진실규명, 교류연대, 교육문화, 기념사업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5·18 기념사업을 추진, 광주정신을 공유하고 국제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5·18 왜곡 대응에 총력=5·18기념재단은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지만원씨에 대한 소송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인터넷 사이트, 출판물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단 측은 5·18 왜곡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적어도 왜곡세력에 대한 소송에서 ‘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엄선해서 주도면밀하게 진행한다”는 게 기념재단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13일에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와 공동으로 ‘역사 부정과 왜곡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도 연다. 학술대회를 통해 기념재단은 왜곡세력이 꾸민 ‘5·18 북한특수부대 및 간첩 개입설’을 체계적으로 반박한다.

또 서울·부산·대구·충남지역 등 5·18 기념사업 광역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왜곡에 대응하는 다양한 공모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눈여겨볼 기념사업과 행사=올해 5·18 기념사업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5·18, 그 위대한 연대’라는 이름의 전시회다.

5월9일부터 광주시 서구 5·18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1980년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광주를 위해 해외에서 신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열었던 동포 및 인권단체의 활동상에 대한 기록이 처음 공개된다. 기념재단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980년 6월 2일 동포 2명이 발표한 성명서를 입수한 데 이어 독일, 미국, 일본, 태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해왔다.

지난 1994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희생자를 기리고 5월 정신을 계승하자’며 망월동 구묘역에서 시작한 돌탑쌓기 운동도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문화전당 공사를

위해 옛 전남도청 칸막이를 철거하면서 나온 벽돌을 가져와 돌탑의 중심을 구성하고 ‘5·18 시민군의 마지막 항전지였던 도청의 벽돌’이라는 설명과 돌탑쌓기 운동의 취지도 알린다.

5월 16~17일로 예정된 광주아시아포럼에는 역사 청산의 경험이 있는 독일의 한국 주재 대사가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나치의 만행에 협력했던 지식인·언론인 등 부역자를 처벌한 역사 청산의 경험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선행적 경험이 많은 것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념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념재단은 국내외 인권단체와 함께 광주정신 세계화를 위해 광주인권상 수상자 연례워크숍, 5·18 국제 사진전, 5월 영화 페스티벌을 열고 5·18 교재 개발 등 교육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2020년까지

### 빛공해 절반 줄인다

#### 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키로

조명에 의한 수면 장애,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월15일자 7면)에 따라 광주시가 2020년까지 빛공해 50%를 줄이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4년 환경영향평가, 지난해 방지방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빛공해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방지대책, 조명환경 개선사업,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1종부터 4종까지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계획도 세워 시민·구정장 의견수렴, 빛공해 방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전 설치한 조명기구에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 설치하게 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등 불빛으로 수면이나 농작물 생육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증가세를 보여 ‘빛의 도시’로서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

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3년 164건, 2014년 168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환 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야간 조명기구가 늘어나면서 빛공해에 대한 관심도 커진 만큼 민원 차단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병원은 ‘복새동’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우리아동병원에 몰려든 감기 환자들이 대기실에서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봄은 손짓 하는데...광주·전남 독감 유행 최고조

### 전남 발병률 전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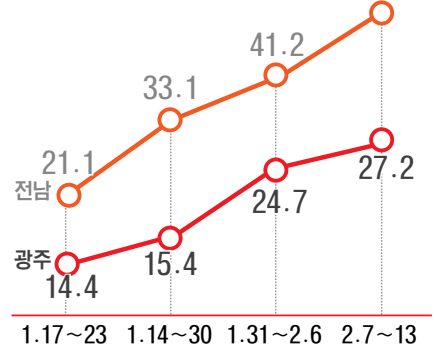
#### 개학 앞 학생 위생관리 주의

광주시 동구 총장로 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연일 38도 이상의 고열을 호소하는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와 감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독감 환자는 이달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반 감기 환자들의 증세도 독감만큼 강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지역 독감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까지 독감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개학과 입학 앞둔 학생들의 위생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독감 환자 발생 현황

\* 단위 : 외래환자 1,000명당



22일 광주·전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13일 사이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목 아픔 등의 증상을 나타낸 전남지역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58.3명으로 전국 평균(53.8명)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수준(11.3명)의 5.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남의 경우 지난 1월 17~24일 21.1명, 1월24~30일 33.1명, 1월31일~2월6일 41.2명 등 지난 1월 중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지난 7~13일 사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27.2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 1월 중순(14.4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보건당국 관계자는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1, 해질 18:54, 해넘이 18:22, 해돋이 07:13

강릉 주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1/8	보성	0/9
목포	0/5	순천	3/10
여수	4/9	영광	-1/6
나주	-1/8	진도	0/7
완도	1/8	진주	0/6
구례	0/8	군산	1/5
강진	0/8	남원	-1/6
해남	-1/7	속산도	3/5
장성	-1/7		

◇비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1.0	북서	1.5~2.5
남부	남서	1.0~2.0	북서	2.0~3.0
남해	남서	0.5~1.0	북서	1.0~2.0
서부	남서(동)	1.0~2.0	북서	1.5~2.5
서부	남서(서)	1.0~2.5	북서	2.0~3.0

◇생활지수

- 체감온도: 관심
- 동파: 낮음
- 뇌졸중: 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29	07:48	15:04	20:15
여수	09:47	03:24	21:58	15:46

◇주간 날씨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1(화)
☀	☀	☀	☀	☀	☀	☀
-3/3	-3/6	-2/8	-1/8	-1/7	-2/8	-2/8

## “문 닫는 상무소각장에 복지타운 건립을”

### 주민대책위 성명

광주 상무지구 주민들이 오는 11월 폐쇄되는 광주 상무소각장 부지에 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형철)는 22일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착수 보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무소각장은 광주시의 결정·고시에 따라 오는 11월29일 폐쇄된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는 지난 17년 동안 3만여 상무 주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환경·생명·재산

권을 철저히 무시해왔다”면서 “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으로 적립된 51억여원의 주민지원기금과 국비, 시비를 더해 복지타운 건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을 위한 도서관 건립 △주민 건강 약화 조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설립 등도 요구했다.

용역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박영석 광주시 환경생태과장은 “광주시와 용역회사,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비 확보 방안을 찾는 후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승진 청탁’ 뇌물 주려던 경찰 3명 중징계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으려다 적발된 경찰관들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으려 한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탁을 알선한 순천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청탁을 받은 순천경찰서 B경위는 해임됐으며, A경위의 권유로 B경위에게 현

금 350만원을 건네려 한 전남청기동대 소속 C경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순천 출신인 C경장이 고향 인맥을 활용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입수하고 지난달 승진자 발표 이후 B경위의 자택 앞에 찾아가 돈을 건네려던 현장을 포착했다.

A경위는 B경위가 기동대 간부와 과거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인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중간에서 청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 / 010-3608-8897